

# VOGUE KOREA

보그 한국판  
J A N  
2 0 0 7  
통권 126 호  
5,000 원

1월의 선택, 윈터 룩 vs. 크루즈 룩  
**WINTER  
CALLS OUT  
SPRING!**

6명의 스타일리시한  
문장가가 쓴 패션 콩트  
**CHICK &  
CHIC**

**PLUS**  
나이 먹는 게 두려우세요?  
점술가와 심리치료사가 만났을 때  
에릭 바나와 지젤의 데이트  
로저 페더러, 프리다 지아니니,  
다니엘 헤니, 감우성과 김수로...

니콜 키드만, 천국과 지옥  
**NICOLE  
KIDMAN**  
HAPPINESS  
HEARTBREAK  
이름다운 장애우 4인과의  
**THIS IS LIFE**



ISSN 1228-1166  
01  
9 771228 116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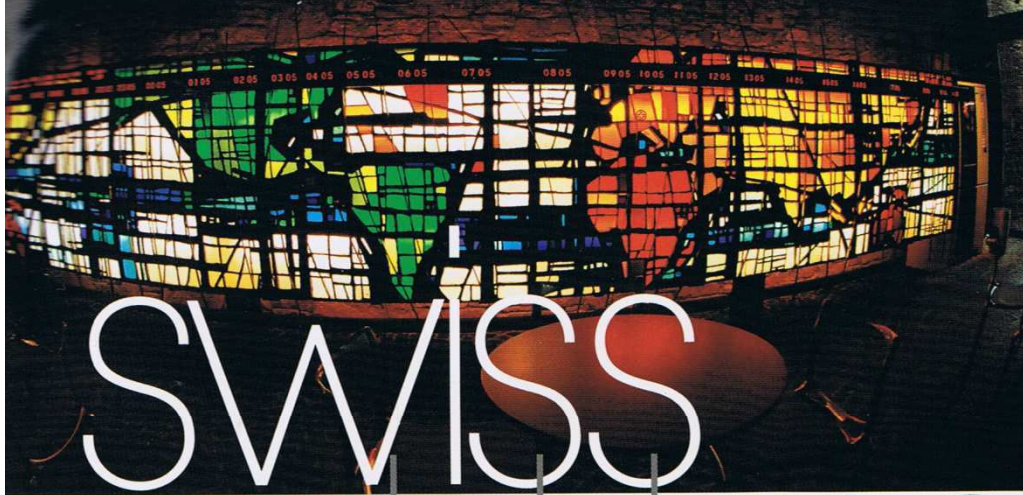
# THE VOGUE LIST

2007년을 시작하는 101가지 아이디어와 이슈, 아이템

1월호 별첨



PEOPLE ARE TALKING ABOUT



# SWISS watchland

스위스사람들의 시계에 대한 열정은 '메이드인 스위스'의 믿음을 진리로 만들었다. 인터라켄의 한 유명 시계 부티크와 박물관과 복원실, 시계 장인의 작업실 풍경은 곧 스위스 시계의 과학이자 예술, 역사이자 미래다. 시계의 사연이 일상의 취향이 되는 그곳에 갔다.

누

군가에게 시계는 패션, 혹은 과학이며 역사다. 세계적 캐비노티에(Cabinotier, 시계 명장) 앙트완 프레지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계는 기계와 사람을 소통시키는 예술품이다. 시계가 없으면 역사를 만들 수 없다." 시계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독점하는 곳, 명품보다 쟁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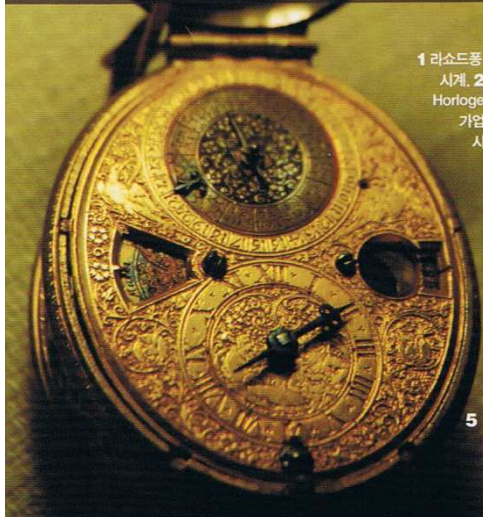
시계 광고들이 먼저 만나는 곳, 겸손하지만 고급 시계를 소중히 여기는 범도 아닌 곳, 바로 스위스다. 취리히는 서울보다 추웠다. 기후는 시계산업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 중 하나. 국토의 80%가 산인 이곳 사람들은 겨울이면 와인 넣은 풍류로 몸을 데우며 시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5백 년이 지난 지금, 가내 수공업으로 시작된 스위스 시계산업이 어떻게 세계의 표준시가 되었을까?

사상 최고가인 3백48억원짜리 시계 브랜드이자 왕족, CEO 등이 선호하는 예술품 필립과텍부터 혁신적 감각으로 스위스 시계의 재진성기를 이끈 스와치까지, 융프라우 아래의 관광 도시, 인터라켄은 시계 천국이다. 그 중 키호르퍼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시계 브랜드를 보유한 시계 가문이자 회사. 10년의 준비 끝에, 'Haute Horlogerie'라는 시계 부티크를 열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언론들을 불러 성대한 오픈링 파티를 개최하고 있다. '최고의 시계'라는 의미의 부티크는 1955년에 지어진, 인터라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에 자리하

고 있다. "오래된 것을 남겨라, 그것들은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솜에 걸린 이 문구처럼 노련한 최고의 시계들이 저마다 빛내는 곳. '시계의 아버지'이자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계를 만든 브레게, 최초의 시계 브랜드인 블랑팡, 프랑스의 디자인과 스위스의 시계철학이 만난 바세룬 콘스탄틴 등 3백 년 역사의 시계부터 (터미네이터 3) 등에도 소개된 오데마 피제, 앞뒤판 모두 사용 가능한 리버스 방식의 예거, 보석 시계의 최고봉 피아제, 클래식한 I.W.C, 사파이어 케이스가 돋보이는 센트리, 까르띠에와 유라세 나딘까지. 특히 행사에서는 캐비노티에인 빈센트 갈라브레지스도 만날 수 있었다. 그의 대표작 '골든 브릿지'은 마니아들에게 추앙받는 아티스틱한 시계. 투명한 본체에 무브먼트와 숫자판 등을 완벽히 숨기고 있는 그의 시계는 워트 있는 예술 자체다.

이 곳의 시계는 상품 이전에 역사이자 문화다. 키호르퍼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매장이 아닌 시계 박물관처럼 꾸며 나갈 생각입니다. 시계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고, 시계의 역사를 들을 수도 있으며, 철학도 나누는 곳으로. 최고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70년대 후반, 보수적이던 스위스 시계산업은 세이코 등 후발주자의 도전에 직면했었다. 이 난세를 극복한 것은 스와치였고 지금도 시계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지만, 한편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판매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는 것. 행사 후 호텔로 돌아와 보니, 메시지와 함께 키호르퍼 회사의 수제 초콜릿이 침대에 올려져 있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듯 특별한 느낌! Haute Horlogerie가 제 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런 느낌이다. "모든 시계는 이야기이고, 경험



1 라쇼드푸르 국제시계박물관의 로비를 장식하고 있는 시계. 2 인터라켄에 문을 연 시계 부티크, Haute Horlogerie의 외관. 3 스위스 시계의 자부심으로 가업을 잇고 있는 키호르퍼 가문. 4 라쇼드푸르 시계박물관의 복원실. 5 최초의 포켓 워치.



COURTESY OF ROSSIGNOL AG